

“하나님의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 이종윤 원로목사

급변하는 사회에서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영역과 책임은 날마다 달라지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 구조와 변화된 가치관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대 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변신하거나 아니면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목회를 개발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알뜰한 기술과 요령을 터득한 몇몇 목회자들은 교인수를 증가시키는 일에는 일단 효과를 보았다고 자처하고 있으나 시대와 사회를 변혁시킬 능력과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 주기에는 미흡했다고 자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시공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목회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말씀계시와 행위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는 교회보다 우선한다. 예수님이 최고의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내 다른 은사가 있듯이 다른 목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목회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부활하심으로 실현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이다.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추주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거듭난 신자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회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듯 목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뜨겁게 기도로 아버지께 여주어 가면서 균형 잡힌 신앙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376호] 2013년 7월 2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yung Won J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4:1-9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Parable of the Sower(2)"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펠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삭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

“ 불에서 빼낸 나무 조각 ”

■ 암 4:6~13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우리 곁에서 도움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 쓸 것과 필요를 은혜로 채우시는 분, 가르치시고 예수님게로 인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인생을 타다 남은 나무토막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가창한 것 같지만 불에서 막 건져낸 나무토막에도 쓸 수 없는 타다 만 나무토막 같은 것으로 언젠간 사라져 버릴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 심판을 의미하는 불

본문에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수많은 경고와 증거들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죄악으로 인해 뜨거운 불 심판이 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이름다움에 취해서, 불순종 하다가 지옥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성령님의 메시지요 호소입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주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진노는 언제나 긍휼을 수반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은 양식의 고갈, 풍제, 광부기 재앙, 메뚜기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전염병, 전쟁, 지진 등 7가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을 쏟는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이 같은 재난과 환란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태풍, 지진, 재앙, 전쟁, 전염병, 핵무기, 전염병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경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는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예를 자신의 생영처럼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목자가 없어서 양들은 영의 양식이 충족되지 않는데, 삼꾼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2. 이스라엘의 회개와 구원

이스라엘은 사탄이 피우놓은 유행불 속에서 던져진 나무토막 신세가 되었습니다. 잇수르나 바벨론이 피워둔 불 속에 던져진 막대기가 되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대가성운동을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다운 고향, 젖과 꿀이 흐르는 조국 땅에서 쫓겨나 이국 타향에서 이 같은 고생을 하게 되었을까? 돌아켜보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취해서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에 더 많은 욕심과 열성을 내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전심으로 옳되려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심판의 불 속에 던져진 나무 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광석화처럼 건져 주셨습니다. 하루 아침에 세계역사를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조국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맺는 말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우리 인생도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차크’ 는 히브리어로 부르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급하게 위험 속에서 건져주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는 불 속에 던져진 나무막대기였지만 하나님께서 급하게 건져 주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보릿고개, 가난과 굶주림의 불 속에 던져진 나무토막과 같았습니까? 그 불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급하게 개입하셔서 형체도 없이 소멸되기 직전인 이 나라를 건져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슬리고 깨어진 그릇처럼 산산이 조각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조각난 인생의 파편들을 다 찾아서 조각 조각 맞춰주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 손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는 메마르고 타다만 나무토막 같이 그슬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불 탄 나무에도 썩이 트고 꽃이 피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터이니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차도훈 장로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6: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7(삼위일체)...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9(53).....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출 32:25-35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이광순 목사
(Who is on the Lord's side?)	
* 찬 송 Hymn405 (458)...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11-12	인 도 자
찬 송 183(172)	다 함 께
기 도	김형상 집사
성 경 계17:8-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어린양의 승리" ...	설 교 자
* 찬 송 357(39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이정연 권사
성 경 삼상 21:1-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다윗이 늪에 가서"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화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둠에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암 4:16)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 임
 - 한국기독교학술원 공개신학세미나 / 28일(월) 오후2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주제: "3.1운동과 한국교회"
 - 6월 스테반회 월례회 및 성경퀴즈대회(구약) / 6월2일(토) 오후 3시 101호
-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신청 마감 / 6월 세례식이 6월17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6월 3일(주)
문답총정리는 6월 10일(주) 1시에 (장소미정 추후공지)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6월 10일(주) 오후 2시에 (장소미정 추후공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노계현(안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정현구(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5.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광순 목사님은 현재 미국 Atlanta에 있는 Hudson Taylor대학교 총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p> <p>◆ 결 혼 1. 한창완 군(3교구 한인진 집사, 박정순 권사의 차남)과 박소임 양(박규식 성도, 김원희 권사의 장녀) / 6월2일(토) 오후2시 명성교회 새생전 지하1층 호산나홀(440-9000) / 5호선 명일역 4번 출구 도보 5분</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56명	249명	232명	1,337명	139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20)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20일	헌 금	25,954,600	
"	특별예배비		1,075,319
	교회학교운영비		1,429,000
	출 판 비		270,000
"	인 건 비		7,943,650
	도서인쇄비		1,460,000
	복리후생비		998,450
	통 신 비		1,134,640
	소모품비		502,270
	차량유지비		442,500
	수선유지비		1,255,160
	식당운영비		167,890
	합 계	25,954,600	16,678,879